

‘AI Everywhere’로 바뀐 일자리… “인간 중심 안전망 시급”

(인공지능의 일상화)

IT업계, AI로 사라지는 직업군 우려
재교육 부재, 심화되는 고용 불안
사회적 안전망 부족이 초래한 위기
AI 시대, 지속 가능한 공존 필요

글로벌 기술 기업과 석학들이 ‘AI Everywhere(인공지능의 일상화)’를 외치고 있다. 많은 이들이 2025년을 AI 소프트웨어가 일상 속 변화를 본격적으로 이끄는 원년으로 지목하는 한편, IT업계를 포함한 전 산업 분야에서는 인력 감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AI의 빠른 도입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기업들은 AI 솔루션에 307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비용은 2028년까지 연평균 29.0% 성장해 63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는 2030년까지 전 세계 경제에 누적 19조9000억 달러의 영향을 미치며, 2030년 전 세계 GDP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 세계 조직의 AI 도입률이 지난해 55%에서 올해 75%로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다.

AI의 빠른 확산에 따라 주요 기업들



한 연구원이 MEC플랫폼이 설치된 서버실에서 AR글래스를 쓰고, 산업용 AR서비스를 시험해보는 모습. 인공지능(AI)이 빠르게 산업현장에 도입되면서 일자리 감축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SKT

은 AI 시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25년을 AI 시대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전략 담당인 크리스 영 부사장은 2025년 AI 트렌드에 대해 “2025년은 AI가 일상과 업무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는 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며 “AI는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조직이 실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도입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SAS는 AI 보안 위협, 탄소 배출, 불량 데이터로 인한 AI 오염 등 부정적인 변수들을 언급하면서도 2025년을 AI 시대의 대전환기로 평가했다. SAS 측은 “생성형 AI가 주목받는 기술로 자리 잡았지만, 이제는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생성형 AI가 ‘화제의 신기술’에서 ‘일상적인 AI’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술적인 트렌드의 변화도 예고된다. 엔비디아는 소형언어모델(SLM)의 부상을 주목했다. 소형언어모델은 옛 지 컴퓨팅에서 운영되는 로봇의 기능을 개선하며, 고효율 에너지와 가속화된 추론을 추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AI 시대의 도래는 실업률 증가라는 심각한 과제를 동반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AI 도입을 통해 업무 환경을 재구성하면서 노동 인력의 감축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오픈AI의 샘 알트먼 CEO는 “생성형 AI의 한 분야인 ‘AI 에이전트’가 올

해 기업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AI 에이전트는 가상 직원(Virtual Employee)으로 노동 인력에 합류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추론과 전략 구상, 자율적 작업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술은 노동 인력 감축을 가장 직접적으로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미래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대기업 41%가 특정 업무의 AI 자동화에 따라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F는 “AI와 재생에너지 발전이 노동 시장을 재편하며, 특정 기술과 전문직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그래픽 디자이너와 같은 다른 역할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발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업은 기존 직원에 대한 기술 재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평생 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는 2030년까지 1억7000만 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샘 알트먼은 “AI가 중간 수준의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UBI)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UBI는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카카오

지난해 성탄절 연휴·연말 T택시 호출 역대 ‘최다’

지난해 카카오 T택시 이용자수가 가장 많았던 날은 12월 21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13일 카카오 T의 택시 호출 이용자수와 관련한 통계를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간 최대 호출 이용자수를 기록한 날의 택시 탑승 성공률이 매년 상승했으며, 특히 2024년에는 22년 대비 12%p 이상 증가를 기록하며 큰 폭의 개선 효과를 보였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카카오 T 택시 호출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날은 각각 12월 16일, 12월 17일, 12월 21일로 모두 연말 시즌이었다. 세 날짜 모두 성탄절 또는 성탄절 연휴를 앞둔 주말의 토요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연도별 택시 호출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날의 탑승 성공률은 각각 71.3%, 75.4%, 83.4% 등으로 매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탑승 성공률은 택시 호출을 시도한 이용자가 실제로 택시에 탑승해 운행을 완료한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다. /김서현 기자

SKT, 엔비디아 GPU 기반 ‘AI 클라우드’ 선포

가산 AI 데이터센터 오픈 AI 클라우드 ‘GPUaaS’ 출시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를 오픈하고 미국 람다(Lambda)사와 1년간 준비한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개했다.

SK텔레콤은 이를 계기로 AI 인프라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AI클라우드에는 엔비디아의 GPU H100을 기반한 것으로 GPU 가운데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지난달 30일 가산 AI 데이터센터(이하 AIDC)를 오픈하고 시험 운영을 마친 뒤 AI 클라우드 서비



지난해 12월 23일 SK브로드밴드 가산 AIDC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운데)가 GPUaaS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SKT

스인 ‘SKT GPUaaS(서비스형 GPU)’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가산 AIDC는 랙 당 전력밀도가 국내 최고 수준인 44kW로 국내 데이터센터 랙 당 평균 전력밀도인 4.8kW의 약 9배에 달하는 등 고밀도 GPU 서버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 코로케이션 환경을 제공한다.

‘SKT GPUaaS’는 SK 람다사와 지난 1년간 함께 준비한 구독형 AI 클라우드다. 이를 위해 가산 AIDC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의 람다 센터를 유치했다. SKT는 지난 2월 AI DC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첫 번째 글로벌 행보로 글로벌 GPU 클라우드 회사인 람다에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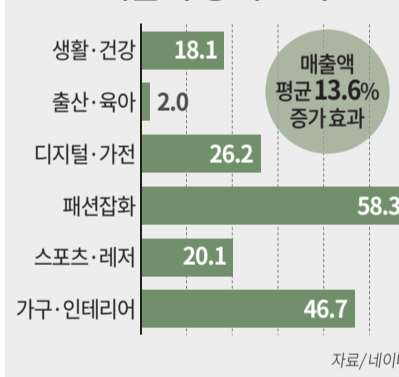
2012년 AI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람

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GPUaaS 기업으로, SKT는 람다와의 협력을 통해 그래픽 처리장치(GPU)의 안정적 확보를 기반으로 AI 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번 출시하는 GPUaaS는 엔비디아 GPU H100을 기반으로 한다. H100은 현재 국내에 도입된 GPU 중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T GPUaaS 구독을 원하는 기업 고객은 AI 서비스 규모나 목적에 따라 GPU 수량과 기간을 선택하고, 단독서버·병행서버·전용회선 등 맞춤형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네이버 ‘반품안심케어’의 SME 매출액 증대 효과



네이버

무료 교환·반품 지원하니 중소기업 매출 13.6% ↑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무료교환·반품 서비스네이버페이 ‘반품안심케어’의 중소·중견기업(SME) 매출액 증대 효과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강형구 교수팀이 네이버페이의 반품안심케어의 효과성과 의의를 분석한 결과, SME의 실질적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 반품안심케어는 무료교환·반품 배송비를 보상해주는 보험 서비스로, 2024년 12월 누적 판매 건수 1억건을 돌파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SME가 판매하는 상품 중 반품안심케어가 적용된 상품의 매출액이 그렇지 않은 상품의 매출액보다 평균 약 13.6%가 더 높았다.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SME의 주문 데이터를 서로 비교한 결과 반품안심케어에 가입한 SME의 일 결제액이 3~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현 기자

삼성전자, ‘중고폰 보상’ 오늘부터 시작

새 폰 안 사도 ‘간편보상’ 가능

삼성전자가 중고 스마트폰 보상 프로그램인 ‘갤럭시 간편보상’을 시작한다. 그동안에는 신제품 구매를 전제로 쓰던폰을 반납해야 특별 보상해주는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조건 없이 중고폰을 매입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4일부터 갤럭시 간편보상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객이 신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연중 언제든지 갤럭시 스마트폰을 삼

성닷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상 모델은 갤럭시 S23·S22·S21·S20 시리즈, 갤럭시 Z 폴드5·폴드4·폴드3, 갤럭시 Z 플립5·플립4·플립3이다. 모델은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중고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를 원하는 경우 갤럭시 간편보상 페이지에서 예상 견적을 확인한 다음 간편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회수 가이드에 따라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면 된다.

/구남영 기자

LGU+ “개인정보 동의 내역 한눈에”

‘프라이버시 센터’ 오픈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주체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센터’를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라이버시 센터는 간단한 웹페이지 접속만으로 고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센터가 고객들에게 처리방침이나 기

술 등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LG유플러스의 프라이버시 센터는 고객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 사용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하반기 ‘개인정보 통합 동의 관리’ 기능이 도입될 예정이다. 고객이 프라이버시 센터에 로그인하면, 주요 서비스별로 어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했는지 조회하고 동의 여부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구남영 기자